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해야 마인드 콘트롤이 돼

나라는 주체의식의 정체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의식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날부터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자기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입을 열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바로 마귀 짓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사망의 영이요, 죄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생각을 시간 시간이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그 비결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가장 강하게 역사를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아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화가 나오는 순간 빨리 생각을 돌려가지고 지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인고로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끔, 나로 하여금 억울한 생각이 나오게끔 하는 것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화날 때에 화를 내지 않는 그 순간 바로 나를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화날 때에 화를 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화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야

왜 그러냐면 마귀가 죽으면 마귀가 죽은 다음에 마귀가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체험을 해 봐서 아는 것입니다. 그 화나는 걸 한 세 번 정도만 화를 안 내고 이제 화날 때에 이제 도리어 감사한 마음, 미운 사람을 도리어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휙 돌려 치면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즐거운지 그것이 왜 기쁘고 즐거우냐면 바로 마귀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좌정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좌정하신 다음에도 화를 낸다든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하면 바로 마귀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마귀를 이긴 다음부터는 다시는 화가 좀처럼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해 본 경험자인고로 여러분들더러 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화날 때에 감사한 마음, 화가 날 때에 도리어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을 돌려 칠 때에 그대로 여지없이 나라는 마귀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화가 또 몇 번 정도는 나오는데 한 세 번 정도만 이기는 생활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화를 냈구나."하고 몇 번씩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그 기본 마음이 뭐냐면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거나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기본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상대방을 고맙고 감사한 나의 상전처럼 여기면 화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려야 낼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 여자의 음란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이루어집니다. 음란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를 보면 저절로 좋게 보이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왜 그런지 싫지 않고 좋은 마음이 나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기본 마음인고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런 음란한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구조를 강하게 갖추기만 갖추면 절대로 음란한 생각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진정한 마인드 컨트롤이란?

그런고로 그것도 한 세 번 정도만 노력을 해서 이제 옛날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기만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음란한 생각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노력도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알고 저절로 될 것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멍텅구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동안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마인드 컨트롤 교육을 시키는 장소를 정해놓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모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조절을 할 수가 없는고로 마인드 콘트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려면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본 마음속에서 움직였던고로 나를 이기기가 힘들었지만 나를 개똥으로 여기고 나를 아주 형편없는 발싸개의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의 구조를 가지면 저절로 나라는 게 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그런고로 나를 미워하니까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해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까지 올라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보고 마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보고 외면을 하고 멸시 천대할 때에 이 사람이 멸시천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다면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몇 십 년간 이 사람을 마귀라고 하고, 말할 수 없는 천대멸시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입니다. 늘 시간 시간이 그와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받고 왜 마귀 소릴 들을까? 하는 것을 이 사람 스스로 반성을 했던 것입니다. 반성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멸시천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마귀 소릴 들어야 마땅한 마귀새끼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멸시하고 마귀새끼라고 조롱할 때에 이 사람은 도리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멸시하고 천대할 때에 이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은혜연결이 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마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강한 은혜가 연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더러 마귀새끼라고 하는 사람,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2년 5월 14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②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③ 하란과 아브람의 돈독한 우애

②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데라 64세에 야알라(히브리어: 암사슴)라는 처녀와 결혼하였지만 5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처 야알라가 그의 몸종 에글라(히브리어: 어린 암소)를 남편의 침소에 넣어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데라는 본처 야알라의 뜻에 동의하고 여종 에글라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데라 70세에 에글라가 아들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71세에 딸 밀가를 낳았고 100세에 아들 롯을 낳았고 110세에 딸 이스가를 낳고 121세에 본토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영 수태하지 못할 줄 알았던 데라의 본처 야알라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데라 130세에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이듬해 데라 131세에 본처 야알라가 나홀을 낳았습니다. 데라 140세에 첩 에글라가 딸 사래를 낳았습니다. 사래 39세에 그녀는 열 살 많은 이복오빠 아브람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란의 세 자녀 중에 큰 딸 밀가는 39살에 열 살 많은 이복삼촌 나홀과 결혼했습니다. 데라의 셋째아들 나홀은 한 살 많은 둘째형 아브라함의 결혼 이듬해에 밀가와 결혼하여, 아버지 데라와 분가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쪽까지 이주하여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곳은 오늘날 터키의 하란에 해당합니다. 나홀은 아버지 데라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것은 데라를 닮아 상술이 세 형제 가운데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금은세공으로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무역을 하는 대상(大商)으로서 그 당시 상업의 요충지 하란에다가 중간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열망을 실현하고자 49세의 나홀과 이복손녀 밀가를 그곳 하란에다가 보냈던 것입니다.

우르(Ur)_ 윌리엄 브레시 홀(William Brassey Hole, 1846-1917)

③ 하란과 아브람의 돈독한 우애

하란은 아브람의 이복형제로서 아브람보다 60살 위였습니다. 또 하란을 낳은 생모 에글라는 데라의 본처 야알라의 몸종이었지만, 주인 야알라에게 순종한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란은 자신을 낳은 에글라를 유모라고 부르고 야알라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비록 신분은 첩이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기에 장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격이란 하란의 생모 에글라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란은 자라면서 갈데아의 최고 어른 아르박삿을 자주 찾아가서 뵙고 노아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응석을 부렸습니다. 아르박삿은 노아의 장자 셈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홍수이전의 시대에 관한 많은 것들을 전해 들어서 아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노아 할아버지가 동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하란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텄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자신보다 60세 연하의 이복동생 아브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브람도 하란을 좇아 아르박삿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노아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에 모시고 대화하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 돈독한 우애로 뭉쳐진 하란과 아브람의 두 형제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온 상인들로부터 노아의 맏아들 셈이 오백세를 훨씬 넘어가지고 아라랏산 서쪽부근에서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금은으로 조각한 드라빔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아버지 데라

하란은 동생 아브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이 각별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많이 감동했으며 또한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에게 금은으로 우상 제작하는 일을 시키면 하란이 대신하였습니다. 본토 우르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달의 신을 더 숭배했으며 금은으로 조각한 드라빔을 가정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드라빔은 손바닥 크기만한 인형처럼 생겼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을 대신하여 형 하란이 드라빔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자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형 하란도 아브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제작하는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브람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가슴앓이를 해오던 아브람은 61세 되던 해에 중병에 걸려 의식마저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 사래와 큰형 하란의 지극한 병간호에도 차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란은 사랑하는 아브람의 중병이 집안에서 만들어 파는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우상들이 타는 불길이 너무 거세어 하란은 거기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화마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데라의 첫째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것은 마귀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 이후 노아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신이 첫째아들에 의해 장자상속과 더불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마귀가 먼저 난 첩의 자식들을 점령하여 성령을 따라 나온 본처 자식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큰아들 하란을 잃은 아버지 데라의 슬픔은 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불태운 데라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웃의 눈초리가 여간 달갑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웃사람들은 데라의 가족에게 달려들어 자기네들이 믿는 수호신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일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이웃으로부터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장남 하란이 원인모를 화재로 불타는 드라빔을 구하다가 죽었다'고 둘러댔지만, 평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하란을 잘 아는 이웃들은 데라의 변명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안젤라